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을 살펴볼까요?

수업 목표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차시 구성

이 차시는 법전, 유교 질서, 신분제를 통해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을 살펴보고 구성하였다.

도입

- 동기 유발하기
- 학습 문제 확인하기

전개

-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 살펴보기
-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 추측하기

정리

- 학습 내용 정리하기
- 차시 예고하기

교과 역량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지도상의 유의점

신사임당을 한 명의 예술가로 이해하고 그 업적을 다양하게 탐구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수·학습 과정

도입

1 동기 유발하기

- 이전 시간에는 무엇을 공부하였나요?
- 조선 전기의 문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조선 전기 과학 기술의 발전을 공부하였습니다.
- 전통 혼례를 보거나 제사를 지낸 경험이 있나요?
- 네, 있습니다.
- 전통 혼례나 제사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이러한 행사를 치렀을까요?
- 혼인, 장례, 제사 문화는 조선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

2 학습 문제 확인하기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을 이해하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측해 봅시다.

탐구해요

1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을 살펴볼까요?

2

이 시간에는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3

조선은 건국 초부터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나라를 다스리는 가장 기본적인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조선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조선은 유교 질서를 강조하여 백성에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삼강행실도』를 만들어 보급하였다. 유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백성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와 어른을 공손히 모시며 남자와 여자, 아이와 어른 사이의 예절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경국대전』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이라는 뜻으로, 조선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을 담았다.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부터 결혼할 수 있어.

토지, 집, 노비를 사고팔면 100일 안에 관청에 보고해야 해.

『경국대전』(국립 중앙 박물관)

『삼강행실도』

유교의 가르침을 잘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만든 책이다.

부모를 잘 따르는 효자로구나.

그대는 아내의 도리를 잘 지킨 열녀요.

참으로 의로운 충신이다.

『삼강행실도』(국립 중앙 박물관)

전개

3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 살펴보기

지도 + 교과서 66~67쪽의 본문과 자료를 통해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을 파악하게 한다. 사대부들은 법과 제도를 꼼꼼하게 만들고 모든 통치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하게 하였다. 또한 유교 질서를 사회 곳곳에 알리는 데 힘썼으며, 일반 백성에게도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 『삼강행실도』, 『이문행실도』 등의 서적을 만들어 보급하였다.

- 교과서 66쪽의 자료를 바탕으로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을 살펴봅시다.
- 『경국대전』은 무엇인가요?
- '나라를 다스리는 큰 법전'이라는 뜻으로, 조선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원칙을 담은 법전입니다.
- 『삼강행실도』는 무엇인가요?
- 유교의 가르침을 잘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만든 책입니다.
- 두 자료에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며 조선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긴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조선 시대에는 신분과 성별에 따라 생활 모습이 달랐다. 조선의 신분은 양인과 천인(천민)으로 나뉘었으며, 양인에는 양반, 중인, 상민이라는 여러 계층이 있었다. 여성은 보통 집안일과 자식 교육에 힘썼다. 신사임당 등 일부 양반 여성은 예술 활동을 하기도 하였다.

4 스스로 활동 각각의 신분에 알맞은 붙임 딱지를 찾아 붙이고, 한 가지 신분을 골라 그들이 일상에서 무엇을 소망하였는지 추측해 보시다. **붙임 ③ 활용**

양반 유교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공부하고 관리가 되어 나랏일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중인 양반을 도와 관청에서 일하거나 의학, 통역 등의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였다.

상민 대부분 농사를 지었고, 일부는 장사 등을 하였다. 나라에 세금을 내고 노동력을 제공하였다.

천민 대부분 노비로 관청이나 양반의 집에서 허드렛일을 하거나 물건을 만들었으며, 재산처럼 여겨졌다.

예술을 품은 조선 여성, 신사임당

신사임당은 조선의 예술가로 글과 그림에 모두 뛰어났다. 특히 풀과 벌레를 소재로 하여 그린 「초충도」에는 그의 섬세한 그림 실력이 잘 나타나 있다. 신사임당은 자식 교육에 힘써 학자인 율곡 이이를 길러 냈고 동시에 훌륭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5 장기간 확인해요 조선 시대에는 신분과 성별에 따라 생활 모습이 달랐다. (O X)

정답 160 쪽

수업 도움 자료

교과서 수업 안내

교과서 66~67쪽에서는 「경국대전」과 「삼강행실도」를 통해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을 살펴보고 신분과 성별에 따른 생활 모습을 이해하도록 지도한다. 이후 조선 시대 사람들이 신분에 따라 무엇을 소망하였는지 추측함으로써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한다.

학습 준비물(교수·학습 자료)

교과서 붙임 ③, 활동지(지도서 248쪽)

이런 수업 어때요?

그림 자료 활용 학습 조선 전기의 사회에 대해 공부할 때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신분에 따른 차이를 이해하게 할 수 있다.(지도서 247쪽 자료 5)

교과서 관련 질문 예시

-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을 잘 알 수 있는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신사임당에 대해 알고 있는 사실이 있나요?

- 조선 시대 사람들은 크게 양인과 천인(천민)으로 나뉘었습니다. 양인은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여성은 보통 집안일에 힘썼으나 일부 양반 여성은 예술 활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4 스스로 활동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 추측하기

활동 안내 신분에 알맞은 생활 모습을 찾아보고 한 가지 신분을 골라 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생각해 본다.

활동 방법 교과서 붙임 ③의 붙임 딱지를 붙여 교과서 67쪽의 그림 자료를 완성해 보도록 한다. 이후 한 가지 신분을 골라 그들이 일상에서 무엇을 소망하였는지 추측해 보도록 한다.

지도+ 활동 이후 '예술을 품은 조선 여성, 신사임당'을 통해 조선 여성의 생활 모습과 민족 문화의 발전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한다.

- 각각의 신분에 알맞은 붙임 딱지를 찾아 붙이고, 한 가지 신분을 골라 그들이 일상에서 무엇을 소망하였는지 추측해 보시다.

정리

5 학습 내용 정리하기

-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에 대해 정리해 보시다.
 - 조선은 유교 질서를 강조하였습니다.
 - 조선의 신분은 양인과 천인(천민)으로 나뉘었습니다.
- 장기간 확인해요**를 풀어 보시다. **답** ○

6 차시 예고하기

-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의 과정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조선의 노력을 알아보겠습니다.

평가하기

평가 관점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을 설명할 수 있나요?	상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을 유교 질서, 신분제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중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을 유교 질서와 신분제 중 한 가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하	조선 전기의 사회 모습을 설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교수·학습 참고 자료

자료 1 『경국대전』

교과서 66쪽

『경국대전』은 조선 전기의 법전으로, 1461년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여 1485년에 완성되었다. 이는 조선 초기부터 전해져 오던 여러 법령을 모아 집대성한 것이며, 이 전·호전·병전·형전·예전·공전의 여섯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이전: 중앙 및 지방 관리들의 조직에 관한 법률
- 호전: 나라를 운영하는 돈과 관련된 법률
- 예전: 과거, 의례, 외교, 친족, 제사 등에 관한 법률
- 병전: 무과, 군사 제도에 관한 법률
- 형전: 형벌, 재판, 노비에 관한 법률
- 공전: 도로, 교통, 도량형, 공장 등에 관한 법률

『경국대전』은 조선 시대에 오랫동안 최고 법전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였다. 영조 대에 이르러서야 『속대전』이 만들어져 『경국대전』과 함께 사용되었다. 『경국대전』은 조선 왕조가 법치주의를 따랐음을 보여 준다.

— 김한중 외, 『한국사 사전 1: 유물과 유적·법과 제도』

자료 2 『삼강행실도』

교과서 66쪽

『삼강행실도』는 유교 도덕의 기본으로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 세 가지라는 뜻의 삼강(三綱)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行實]를 그림[圖]과 함께 수록한 책이다. 『삼강행실도』는 조선 시대의 대표적 관찬 교화서로서 이후 간행된 여러 행실도들의 모범이 되었다. 대다수의 사례가 중국의 인물들이지만, 그 체제는 중국의 서적과는 조금 달랐다. 『삼강행실도』는 효자, 충신, 열녀의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성한 것, 그림, 이야기, 시찬의 체제, 한 도판에 여러 장면을 그려 넣은 형식 등을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김화의 아버지 살해 사건을 계기로 편찬된 만큼 편찬 순서가 충신, 효자, 열녀의 순이 아니라 효자, 충신, 열녀의 순으로 된 것도 특징이다.

— 우리 역사 넷 누리집,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자료 3 조선의 유교 문화

교과서 66쪽

조선 사회를 유교 사회라고 하지만 유교가 온전히 이해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16세기 후반 성리학에 대한 이론적인 탐구가 본격적으로 나타나 인간의 성정(性情)을 이기론으로 해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심성론(心性論), 특히 사단칠정(四端七情)의 문제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성리학 이론이 더욱 정치해졌고 조선 성리학의 특징적인 이론 체계가 확립되었다.

성리학은 단순히 잘 짜인 논리적인 사유 체계로서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사고와 행위를 규제하고 이끄는 구실을 하였다. 이기론은 유교적 윤리 도덕과 명분론적 사회 질서가 자연적이고 보편적인 것임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러한 사회 질서를 지키고 그에 맞는 인간을 형성하는 것을 궁극적인 관심으로 삼았다.

유교 문화는 생활 및 관습이나 법, 사회 조직 그리고 사회의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이었다. 유교 문화는 그것을 담지한 자들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생활 공간인 관료제에서, 그리고 향촌 사회에서 나타난다고 하겠다. 그러한 유교 문화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인간 상호관계에 대한 규정이었다. 삼강오륜(三綱五倫)에서 제시하고 있는 군주와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연장자와 연소자, 친구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와 첩, 적자와 서열, 사족(士族)과 상인(常人), 지주와 전호 관계 등 사회의 모든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었다. 각 관계에는 질서가 있으며 그의 구체적인 표현이 예(禮)였다.

조선 사회에서 유교 문화가 지니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가치관의 확산과 그 행위 규범의 실천에만 의존하여 생활과 풍속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에 따라 강제되고 형률에 따라 통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양반층은 향촌 사회에서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면서 유교 문화를 누리고 퍼져나가게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의 계급적 이해가 반영된 국가 권력에 의존하여 그 문화를 유지하고 보급하였다.

— 국사 편찬 위원회, 『신편 한국사 31: 조선 중기의 사회와 문화』

조선 시대 신분의 완성 시기와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아직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 주제에서는 4분설에 의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양반은 원래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었는데, 뒤에 지배 계층인 사족을 의미하는 말로 변하였다. 양반은 토지와 노비를 소유한 지주가 대부분이었으며, 과거·음서·군공 등을 통해 국가의 고급 관직을 독점하였다. 그들은 생산에는 종사하지 않고 오직 현직 또는 예비 관료 내지 유학자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닦던 신분이었다.

중인은 기술관 및 향리·서리·토관·군교·역리 등 경·외의 아전직과 양반에서 격하된 서얼 등을 일컫는다. 중인에는 양반과 상민 사이의 중간 신분 계층이라는 넓은 의미의 중인과 기술관만을 지칭하는 좁은 의미의 중인이 있었다. 이 가운데 넓은 의미의 중인은 15세기부터 형성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에 이르러 하나의 독립된 신분층을 이루었다.

상민은 평민·양인이라고도 부르며, 백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민·공장·상인을 말한다. 이들은 원칙적으로 출세에 법적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교육을 받을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관료로서의 진출이 거의 불가능하였다. 또한 이들은 조세·역·공납 등의 무거운 의무를 지고 있었다. 공장은 관영이나 민영의 수공업에 종사하였다. 상인에는 시전 상인과 행상인 보부상 등이 있었는데, 초기에는 국가의 통제 아래 상거래에 종사하였다. 조선 사회에서는 농민이 공장이나 상인보다 우대되었다.

조선 시대의 천인(천민) 중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노비였다. 노비에는 국가에 속해 있는 공노비와 개인에게 속해있는 사노비가 있었다. 이러한 공·사노비는 입역 노비(立役奴婢)와 납공 노비(納貢奴婢)로 구분되기도 한다. 전자는 관부의 노역이나 집주인의 잡역에 종사해야 하며, 후자는 관부나 주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하면서 일정한 신공(身貢)을 바칠 의무가 있었다. 이들은 각각 솔거 노비와 외거 노비로 불리기도 하였다. 특히 사노비는 주인에 의하여 세전됨으로써 재물처럼 취급되어 매매·상속·증여되기도 하였다.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노비인 경우에도 그 자식은 노비가 되었다.

— 국사 편찬 위원회, 『신편 한국사 25: 조선 초기의 사회와 신분 구조』

수업 효과

조선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 공부할 때 그림 자료를 활용하여 당시 신분에 따른 차이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할 수 있다.

수업 방법

- ① 먼저 그림 자료를 보여 주며 그 안에 있는 인물들의 신분을 추측해 보도록 한다.
- ② 각 인물이 어떤 생활을 했을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③ 학생들의 이야기가 끝난 후 교사가 해당 자료와 각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에 대해 보충하여 설명한다.

신사임당은 산수도를 잘 그리는 화가로 유명하였다. 율곡의 스승인 어숙권은 신사임당이 안견 다음가는 화가라고 하였다. 신사임당이 부덕의 상징으로서 존경받게 된 것은 17세기 중엽의 일이다. 이는 송시열이 신사임당의 그림을 찬탄하면서 천지의 기운이 응축된 힘으로 율곡 이이를 낳았을 것이라고 평가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율곡이 유학자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자 신사임당은 천재 화가보다는 그를 낳은 어머니로 칭송받기 시작하였다. 신사임당에 대한 유학자들의 존경은 18세기 유학적 가치가 정점에 이른 시기에 더욱 높아졌고, 마침내 그녀는 부덕과 모성의 상징으로 변화해 갔다.

— 정성희, 『인물 한국사: 신사임당, 시와 그림에 능한 예술가이자 현모양처의 상징』

추천 도서 및 영상, 관련 누리집

- 김한중 외, 『한국사 사전 1: 유물과 유적·법과 제도』, 책과 함께 어린이, 2015.
- 우리 역사 넷, 「교과서 속 책 이야기: 삼강행실도」
- 오죽헌 시립 박물관 <https://www.gn.go.kr/museum/>

1-3.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 추측하기

반

번

이름:

1 서로 관련 있는 내용과 그림을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양반



유교의 가르침이 담긴 책을 공부하고 관리가 되기도 하였다.

중인



대부분 농사를 지었고, 일부는 장사 등을 하였다.

상민



관청에서 일하거나 여러 분야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였다.

천민



대부분 노비로 허드렛일을 하거나 물건을 만들었다.

2 조선 시대 신분 중 한 가지를 골라 그들이 일상에서 무엇을 소망하였는지 추측해 봅시다.



내가 만약 조선 시대의 (양반 / 중인 / 상민 / 천민)이라면 일상에서 _____

_____을/를 가장 바랐을 것입니다.

①-3. 민족 문화를 지켜 나간 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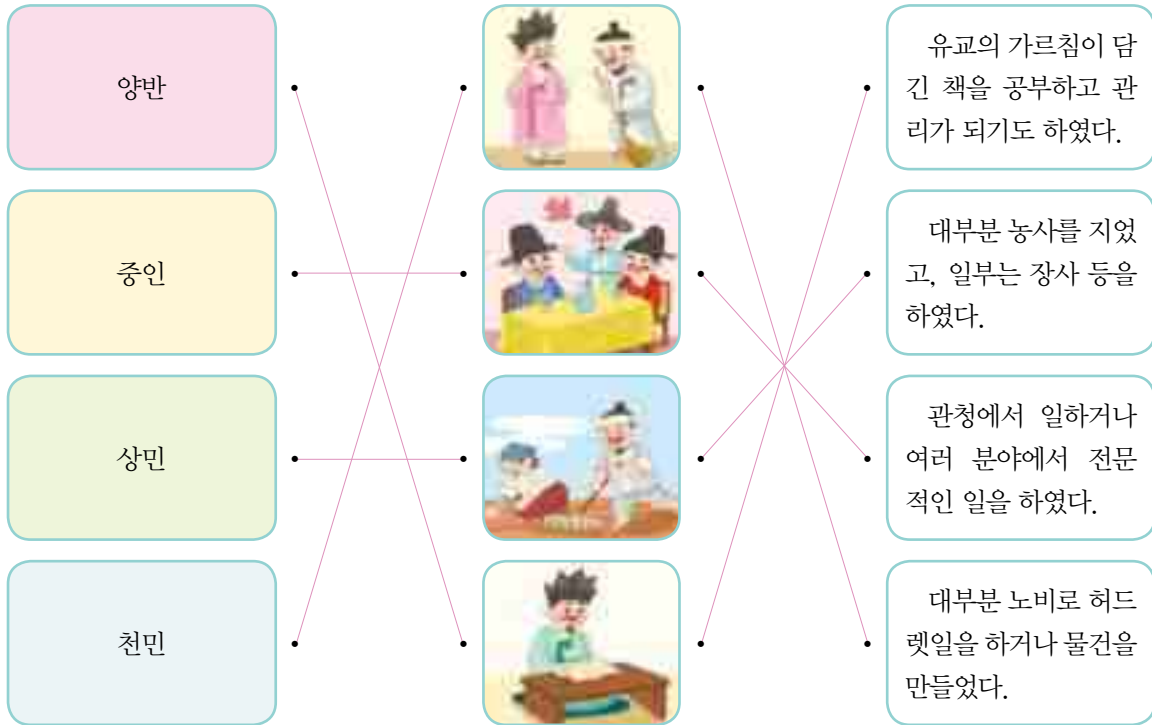
신분에 따른 생활 모습 추측하기

반

번

이름: _____

1 서로 관련 있는 내용과 그림을 선으로 연결해 봅시다.



2 조선 시대 신분 중 한 가지를 골라 그들이 일상에서 무엇을 소망하였는지 추측해 봅시다.



내가 만약 조선 시대의 (양반 / 중인 / 상민 / 천민)이라면 일상에서 장영실

처럼 노비 신분에서 벗어나서 허드렛일을 하지 않기

_____을/를 가장 바랐을 것입니다.